미시경제학 *Microeconomic Theory*

불확실성하의 선택

서울시립대 성낙일 교수

강의 순서

- 1. 상황선호접근법
- 2. 예산제약
- 3. 효용함수: 기대효용
- 4. 소비자의 최적선택

1. 상황선호접근법

불확실성하의 선택문제

- 우리는 미래의 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.
 - 생명보험에 가입할 것인가? 가입하기로 작정했다면 얼마나 가입할 것인가?
 - 여유자금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? 주식에 투자한다면 어느 회사 주식을 얼마만큼 구매할 것인가?
- 가격, 소득 등 일부 변수가 불확실할 상황 에서 소비자는 어떻게 선택을 할까?

사례: 직업선택 문제

■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?

- 개인에 따라 직업선택은 다르다.
- 어떤 사람은 불안정하더라도 높은 기대소득을 주는 직업을 선택하고, 어떤 사람은 기대소득이 낮더라도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한다.
- 기대소득이 동일한 두 직업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선택이 다르다.

불확실성이 초래하는 문제

- 공급자나 소비자 모두 불확실성(으로 인한 위험)을 측정해야 한다.
 -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과와 그 결과가 발생할 확률을 알아야 함
- 불확실성(또는 위험)에 대한 태도는 소비자 마다 상이하다.
 - 모든 소비자가 기대치(expected value)를 근거로 선택을 하지 않음
 - 추가적인 돈이 주는 효용이 사람마다 상이하기 때문

조건부상품과 상황선호접근법

- 조건부상품(contingent commodities)
 -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을 때, 실현된 상황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는 상품
- 상황선호접근법(State-Preference Approach)
 - 상황선호접근법은 조건부상품을 마치 하나의 상품 처럼 간주해 분석하는 불확실성 하의 소비자 선택이론임

조건부상품

■ 사례 1: 우산장수의 수입

- 우산장수가 비가 오면 100만원을 벌고, 비가 오지 않으면 50만원만큼 손해를 보는 경우
- 비가 오지 않는 경우의 수입액: C₄=-50
- 비가 오는 경우의 수입액: C_B=100

■ 사례 2: 경마 마권

- 밑천 100만원를 가진 사람이 경마에 50만원을 걸고, 만약 당첨되면 건 돈의 10배를 받는 경우
- 상황A(꽝) 발생시 소득: C_A=100-50=50
- 상황 B(당첨) 발생시 소득: C_B=100-50+500=550

두 소비자이론의 비교

	확실성하의 소비이론	상황선호접근법
대상	일반상품 (예: 휴대폰 - 피자)	조건부상품 (예: 경마 마권)
예산선의 기울기	두 상품의 상대가격에 의해 결정	게임규칙에 의해 결정
무차별곡선 의 모양	항상 볼록 (한계대체율체감의 법칙)	위험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짐

❖ 공통점: 주어진 예산제약하에서 효용을 극대화

2. 예산선

❖ 상황이 주어져 있을 때 소비자가 선택(구입)할 수 있는 조건부상품의 묶음을 그림으로 그린 것

홀짝게임의 예산선

- ※ 게임 규칙: 10만원을 가진 갑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을과 홀짝 게임을 하고 있음
 - 홀(꽝): $C_A = 10-X$, 짝(당첨): $C_B = 10+X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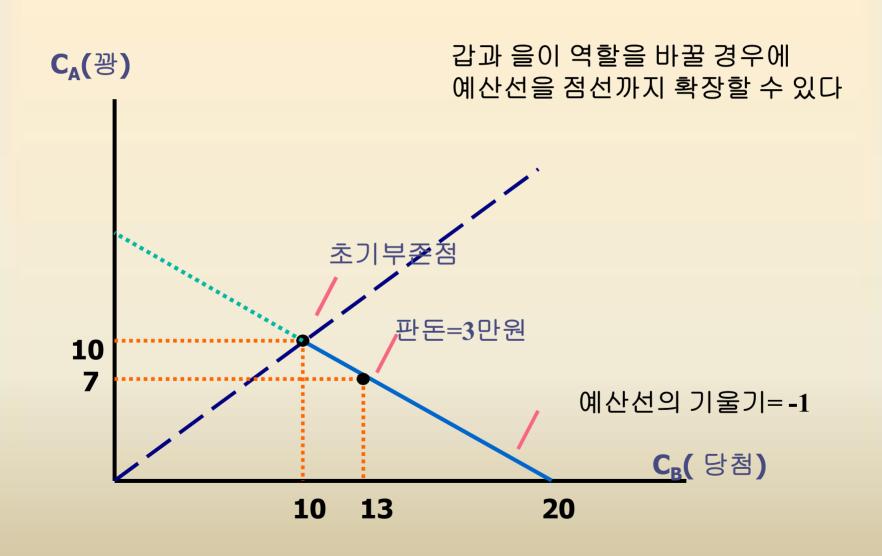
■ 초기부존

• 갑이 전혀 돈을 걸지 않았을 경우, 즉 $C_A = C_B = 10$

■ 예산선

- 판돈 X에 따라 달라지는 C_A 와 C_B 의 조합을 이은 선, 즉 갑의 선택가능성
- 갑의 예산선은 초기부존점과 C_R 축을 이은 직선

홀짝게임에서 갑의 예산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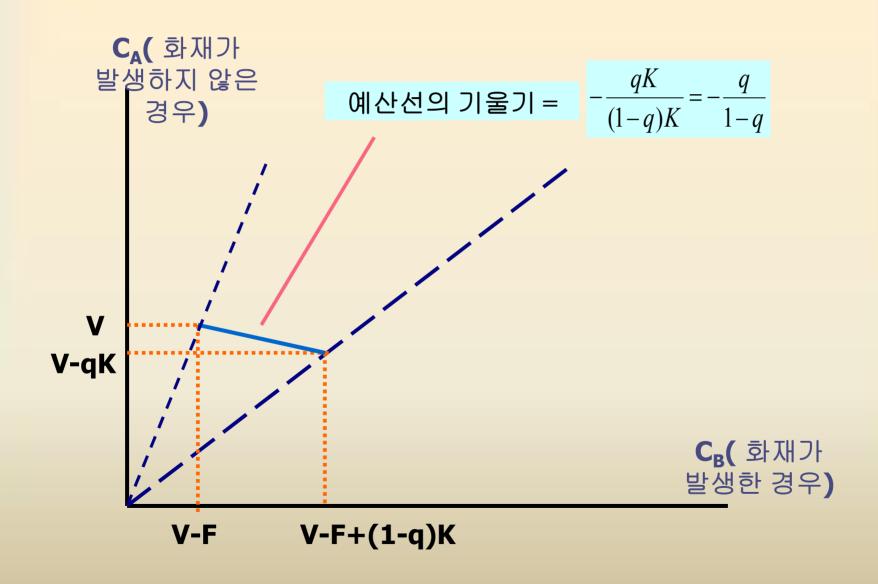
불확실성하의 선택문제에서 예산선의 의미

- 조건부상품의 공급자가 있는 경우
 - 예: 홀짝게임, 경마 마권, 보험
 - 공급자가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상품을 설계하고 제공 → 이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기회 (예산선)가 결정
- 조건부상품의 공급자가 없는 경우
 - 예: 우산장수의 수입, 금융투자
 -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의해 예산선의 선택기회 (예산선)이 결정됨

보험시장의 게임규칙

- 불확실성의 세계: 화재발생 가능성
 - 시가 V(=6억)원 빌딩에 화재가 발생시 F(=4억)원의 손실이 예상됨
 - 화재발생 확률: p=0.01
- 보험상품: 보험료(qK)와 보험금(K)
 - 프리미엄율(premium rate): q=보험료/보험금
- 조건부상품
 - 무재해시 자산액: C_A=V-qK
 - 화재발생시 자산액: C_B=V-F-qK+K=V-F+(1-q)K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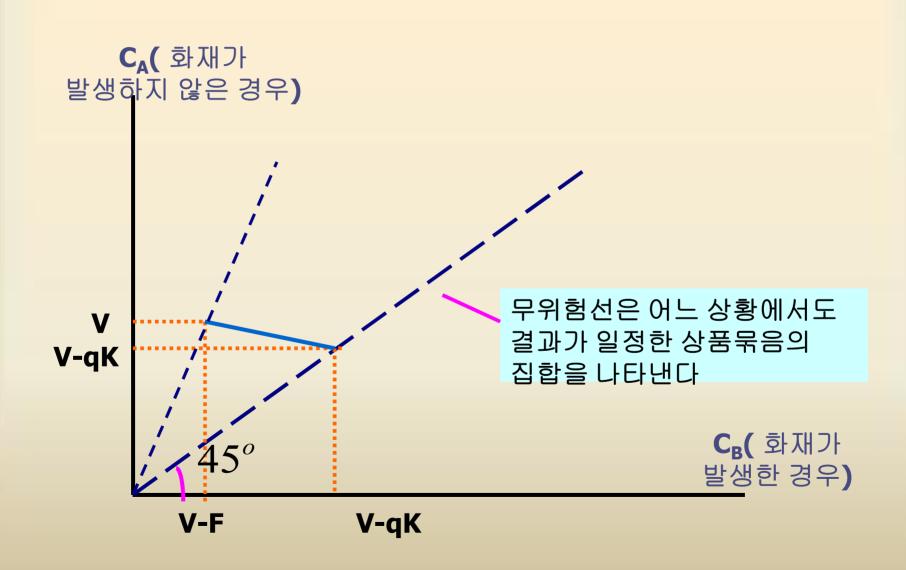
보험의 예산선



전액손실 보상 보험

- 손실액을 전액보상하는 보험상품
 - 보험금(K)=F=4억원, 보험료(qK)=4억원*q
- 보험의 예산선: 초기부존점과 전액손실 보상점을 연결
 - 초기부존점(보험에 미가입): (C_A=V, C_B=V-F)
 - 전액손실 보상점: $(C_A=V-qK, C_B=V-F+(1-q)K=V-qK)$
 - 예산선의 기울기=-q/(1-q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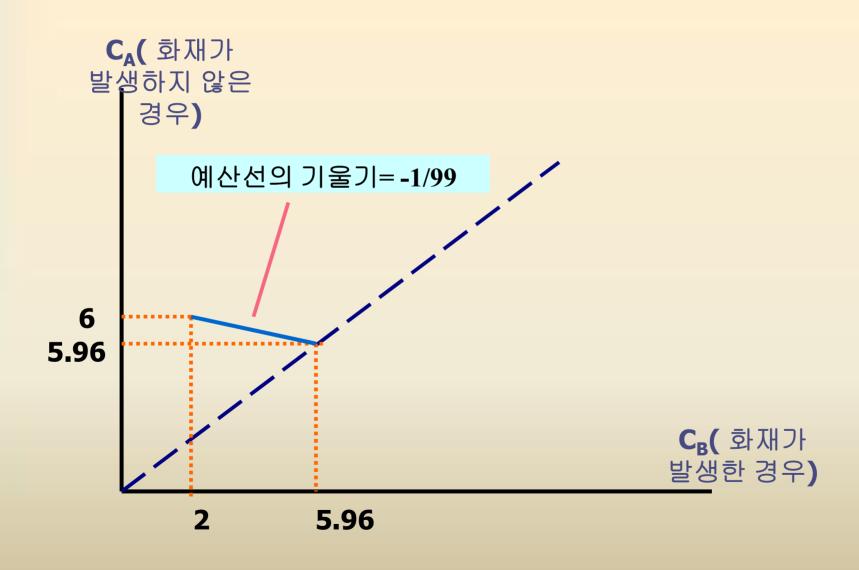
전액손실 보상 보험의 예산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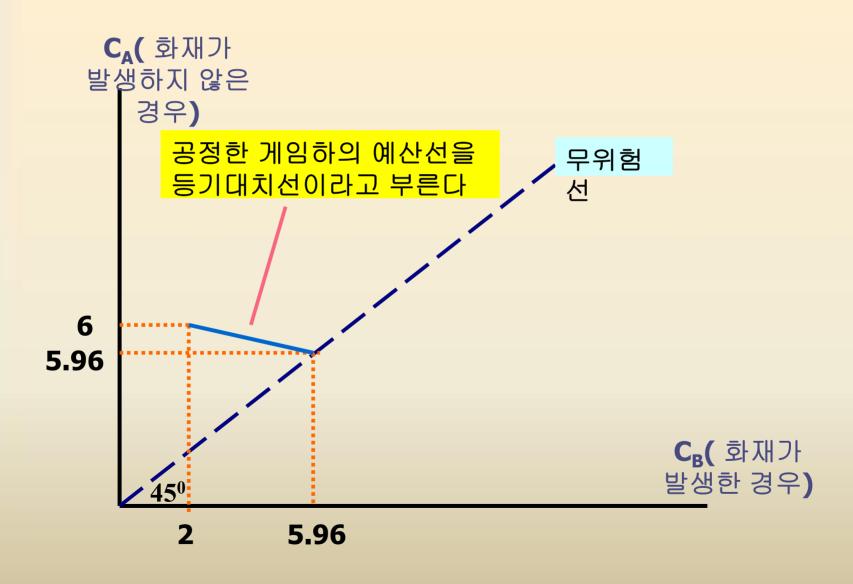
공정한 보험의 예산선

- 공정한 보험: q = p
 - 보험료=보험금*p + 0*(1-p) → q=보험료/보험금=p
 - 공정한 보험상품: q=p=0.01
- 전액손실 보상 보험상품
 - 보험금=4억원, 보험료=4억원*0.01=0.04억원
 - 공정한 보험상품에서 전액손실 보상 보험상품: $(C_A=5.96, C_B=5.96)$
- 공정한 보험의 예산선: 초기부존점과 전액손실 보상점을 연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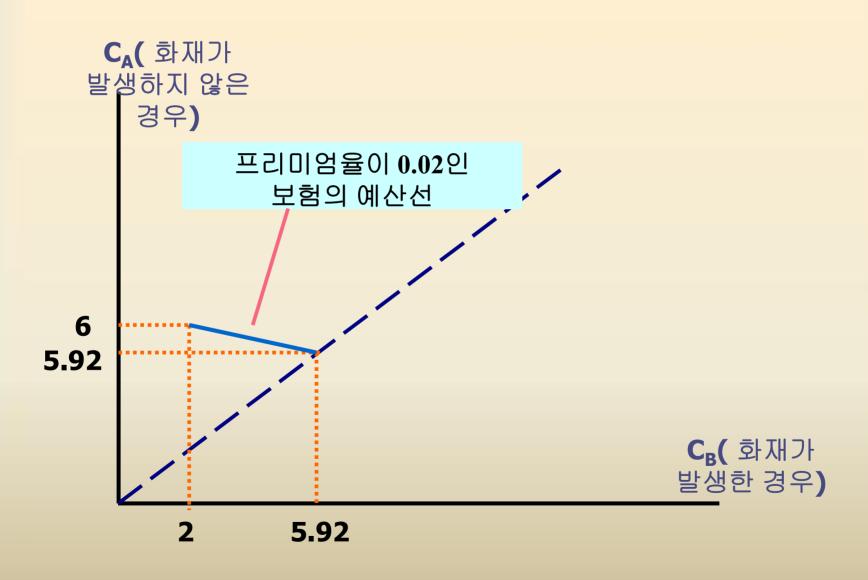
공정한 보험의 예산선



공정한 보험의 예산선



불공정한 보험의 예산선



3. 효용함수: 기대효용

기대효용함수 (expected utility function)

$$U = P_A U(C_A) + P_B U(C_B)$$

- 소비자는 소득으로부터 효용을 얻고 소득은 상황(확률)
 에 따라 달라짐
- 기대효용(=각 상황의 소득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의 기대치)으로 소비자의 효용을 표현할 수 있음
- ※ 위 불확실성하의 효용함수를 폰노이만-모겐스턴 (von Neumann-Morgenstern) 효용함수라고도 부름

기대효용 계산사례

- 어떤 사람이 고려하는 투자계획은 실패 시 0원, 성공 시 900만원의 소득이 기대된다.
- 실패확률=50%, 성공확률=50%
- 효용함수: $U = \sqrt{M}$

- > 기대소득 = 0.5×0 + 0.5×900 = 450
- ▶ 기대효용 = 0.5×0 + 0.5×30 = 15

위험에 대한 태도

■ 사람들은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다름

- 위험에 대한 태도를 위험중립적(risk neutral), 위험기피적(risk averse), 위험선호적(risk loving)으로 나눌 수 있음
- 대다수 사람은 위험기피적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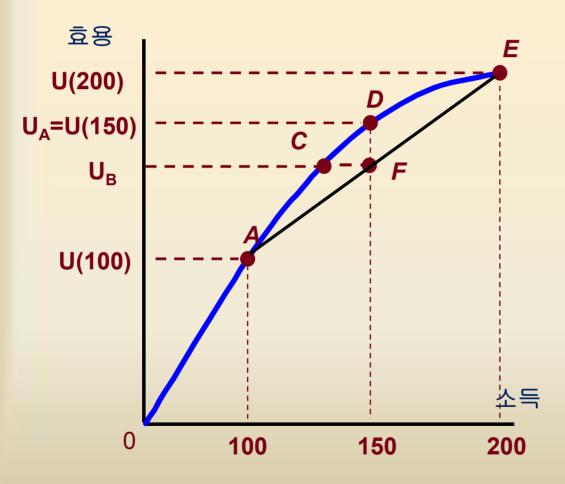
■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누는 기준

- 확실한 소득(150원)과 동일한 기대치를 주는 불확실한 소득(0.5의 확률로 100원, 0.5의 확률로 200원)을 비교
- 소득의 한계효용이 감소/일정/증가하는지 여부

위험에 대한 태도

	위험기피적 태도	위험중립적 태도	위험선호적 태도
확실한 소득과 불확 실한 소득 간 비교	확실한 소득을 선호	무차별	불확실한 선호를 선호
소득의 한계효용	감소	일정	증가
효용함수	X축에 대해 오목	직선	X축에 대해 볼록
무차별곡선	원점에 대해 볼록	직선	원점에 대해 오목

위험기피적 태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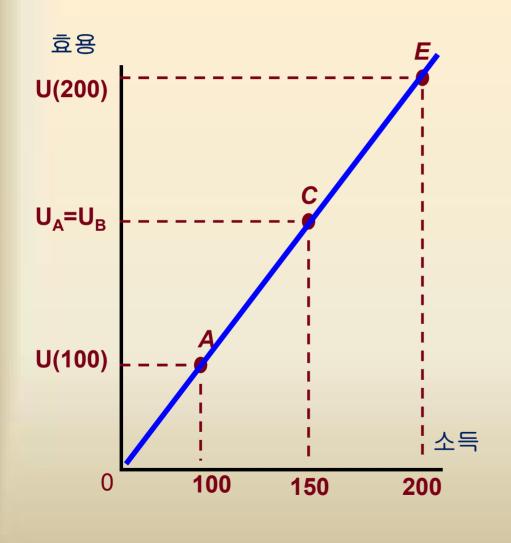
<u>확실한 소득의 효용</u>: U_A =U(150)

<u>불확실한 소득의 효용</u>: U_B=0.5*U(100)+0.5*U(200)

$$\rightarrow U_A > U_B$$

소득의 한계효용은 감소

위험중립적 태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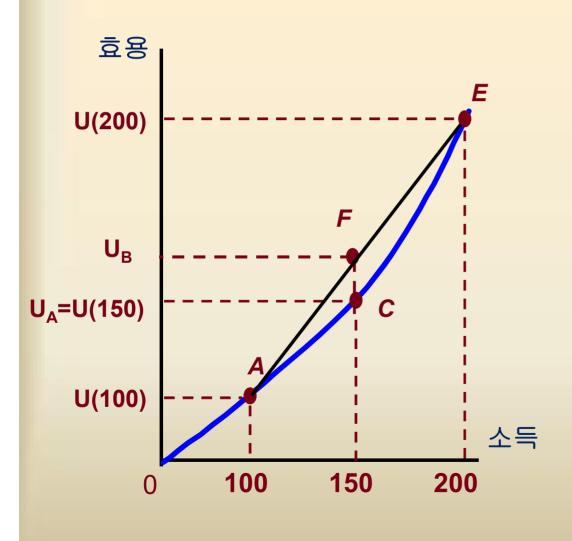
<u>확실한 소득의 효용</u>: U_A =U(150)

<u>불확실한 소득의 효용</u>: U_B=0.5*U(100)+0.5*U(200)

$$\rightarrow U_A = U_B$$

소득의 한계효용은 일정

위험에 대한 태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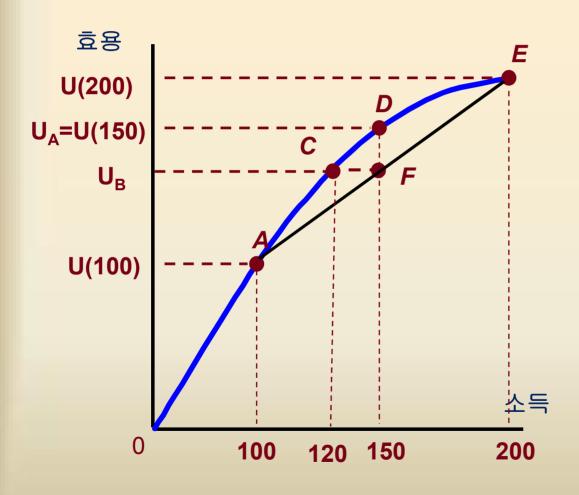
<u>확실한 소득의 효용</u>: U_A =U(150)

<u>불확실한 소득의 효용</u>: U_B=0.5*U(100)+0.5*U(200)

$$\rightarrow U_A = U_B$$

소득의 한계효용은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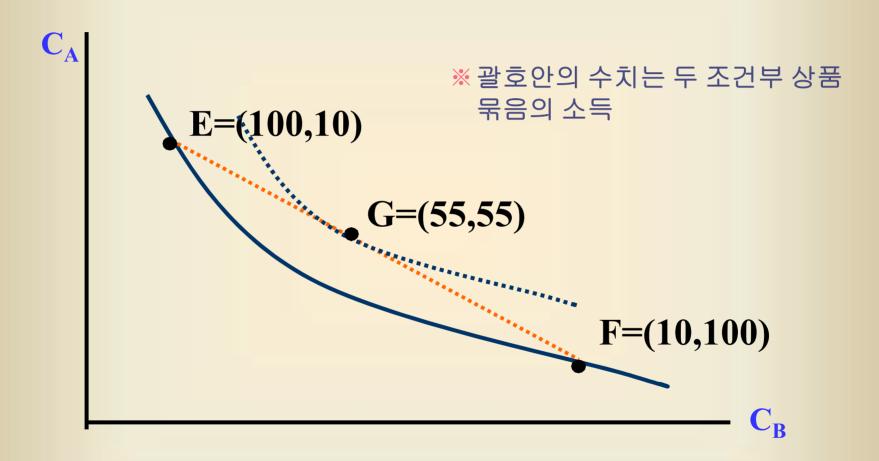
위험프리미엄 (risk premium)



위험프리미엄:

위험기피자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(C점과 F점의 거리=30)

위험기피자의 무차별곡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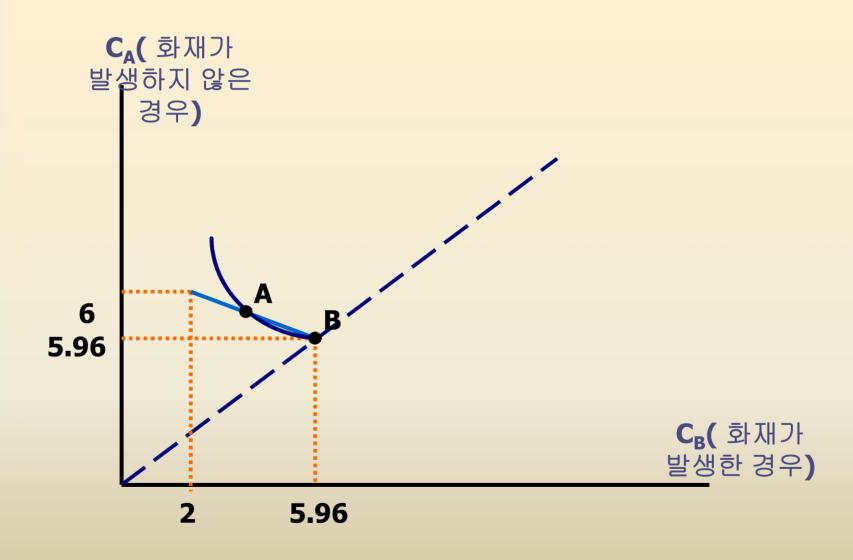
❖ 위험기피자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, 즉 위험기피자 는 극단적 상품묶음보다 평균적 상품묶음을 선호

위험기피자의 무차별곡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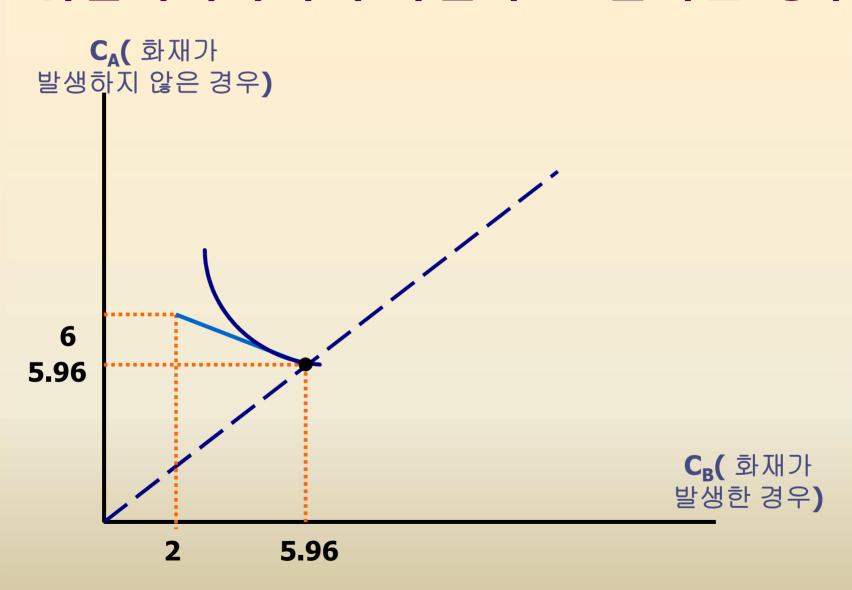
■ 무위험선에서 무차별곡선의 기울기 = 등기대치선의 기울기

• 만약 두 기울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무위험선과 등기대치선을 관통하는 무차별곡선이 존재하게 되며, 이는 위험기피적 태도와 배치됨

위험기피자의 무차별곡선: 잘못된 경우



위험기피자의 무차별곡선: 올바른 경우



4. 소비자의 최적선택

위험기피자의 보험가입액

■ 위험기피자의 무차별곡선

- 무위험선 ↔ 손실을 전액보상받는 보험
- 무위험선에서 위험기피자의 무차별곡선은 등기대치 선의 기울기와 같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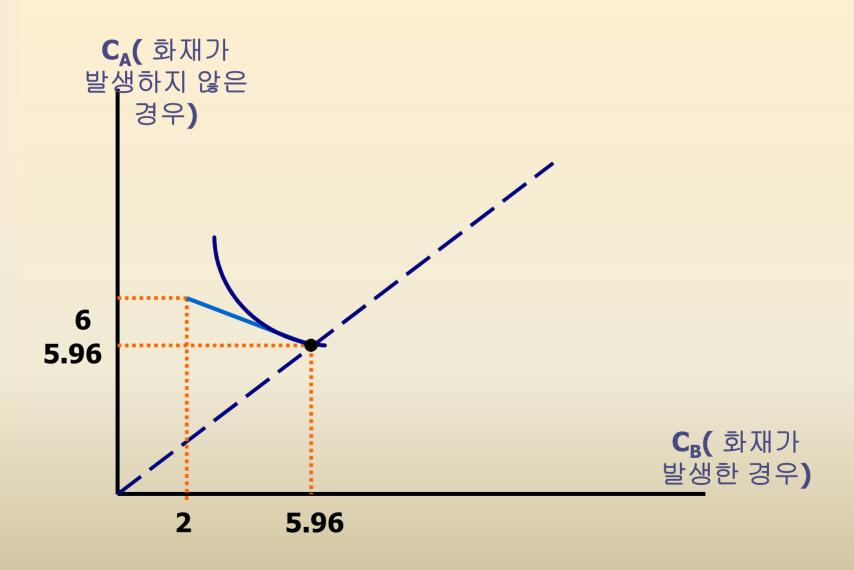
■ 공정한 보험의 경우

- 공정한 보험 → 예산선이 등기대치선이 됨
- 전액손실 보상점에서 무차별곡선이 예산선과 접함,
 즉 위험기피자는 전액손실 보상보험을 선택

■ 불공정한 보험의 경우

• 위험기피자는 일부손실만 보험에 가입

위험기피자의 보험가입액: 공정한 보험



위험기피자의 보험가입액: 불공정한 보험

